교회소식 Announcements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아침묵상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방송될 예정입니다.

3. 수요성경공부

수요일 저녁 7시 30분 Zoom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목요일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통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4. 주일 애찬 교제 모임

매주 주일 예배후 아래층에서 식사와 함께 교제 모임을 갖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예배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5. 뉴저지 아버지 학교 장소 제공

뉴저지 아버지학교가 저희 교회 장소를 빌려 진행될 예정입니다.

6. 2024-25 사무총회 안내

작년도 회계와 감사 통과를 위한 사무총회가 2월 23일(주일) 예배후에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참석 바랍니다.

7. 축결혼

서경열 장로님, 최은숙 집사님 가정에 첫째 서재현군이 2월 15일 코스타리카에서 결혼식을 갖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지난 주 (2/9)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760.00

tcc@togetherchus.org 201-580-4123 276 Haworth Ave, Haworth, NJ 07641

빌립보서 1:6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2025.2.16 (591호)

함께하는교회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 Worship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유영환**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c	누가복음 12장 49-59절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불의 시간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2월 23일	3월 2일
최빅토리아	강민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지난주 설교요약 Sermon Summary

깨어 있으라

종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에서 항상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란 노예라는 뜻으로서 사실 누군가에게 쓰기 힘든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종이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 할 길이 없는 겁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하나님께 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것은 겸손의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는 겸손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또한 그 맥락에서 뜻을 같이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말씀은 항상 상황과 반대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상황은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그 속에서 매순간 반복되는 상황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아닌 변함없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종말을 사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깨어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 중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 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감정적 미지근함이 아닙니다. 뜨겁다는 건 말씀에 사로잡힘을 의미하고 차갑다는건 상황의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인내와 연단을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미지근함은 무관심을 말합니다. 그들은 시대에 무관심하고 말씀에 무관심하며 상황에 무관심했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상황에 빠져 자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피곤함에 오는 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잠에 빠졌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항상 깨어 있는 것이 불가능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것이 가능해 졌습니다. 성령께서는 날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들려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종은 오늘도 깨어서 주인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 집니다. 때가 악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